



연예계에서는 스타들의 교제를 두고 다양한, 하지만 '편에 박힌' 표현이 존재한다. 이희준과 이혜정의 '일아가는 단계', 최자와 설리의 '의지하는 사이', 이준기와 전혜빈(왼쪽부터)의 '정말 친한 사이' 등이다. 스포츠동아DB

“알아가는 단계”=사랑이 한창 뜨거울 때

열애설 '공식입장' 클리셰 집중 분석

만남의 계기는 '지인들과의 모임' 단골 열애 숨기고 싶을 땐 '친한 사이' 애용

“두 사람이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호감을 갖고 친분을 쌓게 됐다.”

최근 BH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연기자인 이희준과 패션모델 이혜정의 교제를 인정하면서 밝힌, 이른바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무척이나 낯익은 표현이다. 그동안 연예 사실을 인정할 때는 커플들의 그것과 너무나 달랐다. '알아가는 단계' '지인들과의 모임' '서로 호감을 갖고'와 같은 말은 연예계 '공식입장'에 대부분 포함되는 표현이다. 한 마디로 클리셰(상투적인 표현)라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남녀관계는 '알아가도 모를 일', 많은 열애-결별설의 클리셰는 매우 모호하기도 하다. 대의는 알아듣겠지만 '명쾌하게' 말하지 않아 때문 말장난하는 게 아니냐는 불쾌감마저 들기도 한다. 스타의 열애설에 대한 매니지먼트사들의 그 '상투적인' 해명의 진의를 스포츠동아가 '명쾌하게' 풀어드린다.

● '알아가는 단계'...사랑이 한창 뜨거울 때

이민호·수지, 이동진·지연, 오승환·유리 커플 등이 모두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 프로야구 두산베어

스의 유희관까지도 프로골퍼 양수진과 '친한 사이'로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라고 했다. 직역하면 '데이트하면서 상대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쯤 의미가 된다. 그러나 사랑은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뜨거운 별, 결국 한창 서로에 빠져 물불 못 가리는 상황'에 해당한다. '알아가는 단계'에 수반되는 클리셰가 있다.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다'는 것과 '예쁜 만남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 달라'는 당부다. 또 유사한 표현으로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있다. 작년 8월 최자와 설리가 교제를 인정할 때 설리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내놓은 설명이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 한 가지. '알아가는 단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얼마만큼 서로를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 '지인들과의 모임'...각종 명목의 '친교 모임'

스타 커플이 탄생하면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가 관심사가 된다. 그래서 열애기사엔 빼놓지 않고 교제의 과정이 소개된다. 하지만 같은 작품에서 상대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면, 만남의 계기는 대부분 "지인과의 모임"이다.

생일, 골프나 테니스 등 운동, 친목을 위한 비공개 파티 등 여러 명목의 친목 모임을 통칭한다. 생일모임이 가장 커플 성공률이 높은 '교류의 장'으로 꼽힌다. 생일을 맞은 누군가가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초대된 사람은 또 한두 명의 친구들을 대동한다.

그 자리에서 스타들은 평소 서로 숨겨둔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처를 주고받다 사랑을 싹틔운다. 한편으로 만남의 계기를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도 이 표현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지인과의 모임'은 결국 두루두루 통하는 '연애의 시작'이다.

● '정말 친한 사이'...사랑과 우정 사이?

이준기와 전혜빈은 여러 차례 데이트 목격담이 제기되고 교제 중임을 확인케 하는 정황도 뚜렷하지만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해명했다. 진짜 '친한 사이'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관계는 '의혹'의 대상이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교제하면서도 '정말 친한 사이'라고 부인했다면, '사관다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 불편한 상황이 많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해명일 것이다.

이들 외에도 많은 '열애설'에 휩싸인 스타들은 "친한 선우배 관계"라며 부인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직장이나 학교, 커뮤니티에는 비밀연애 사례가 많다.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연예인들도 연애를 숨기고 싶은 건 마찬가지다.

'결별했다'는 사실을 알릴 때 "좋은 친구" 혹은 "선우배·동료로 남기로 했다"고 한다. 남녀가 교제하다 헤어지면, 정말 두 사람은 좋은 친구와 동료라 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다.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과 비교하면 의미는 더욱 뚜렷해진다. 그냥 "잘 모르는 사

람처럼 지낸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 '결혼은 아직'...말할 수 없다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혼은 아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대개 두 가지로 쓰인다. 하나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 사정상 아직 말할 수 없다"는 의미다.

후자의 경우, 교제를 인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결혼 보도도 이어지기도 한다. 한고은이 7월8일 4세 연상 회사원과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당시 소속사 측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고은은 한 달 보름 만인 8월30일 결혼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클라라 미국 출국...왜?

전속계약 분쟁 합의·소송 취하 마무리 21일 미국행...해외 무대 겨냥 시각도



매니지먼트사와 분쟁을 겪은 방송인 클라라(사진)가 송사를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송을 시작하고 그 사실이 공개된 1월 말부터 연예활동을 중단한 그가 돌연 미국으로 향하면서 이를 두고 여러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니지먼트사 일광플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을 18일 취하한 클라라가 사흘 뒤인 21일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24일 "클라라가 전 소속사와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한 만큼 자유로운 몸이 됐다"며 "지인이 많은 미국에 머물며 여러 구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클라라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그동안 갈등의 끝이 깊던 상대인 이규태 일광플라리스 회장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클라라는 일광플라리스와 맺은 모든 계약을 해지했다. 그동안 계약을 받아왔던 연예계 활동을 더는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클라라의 이번 미국행을 단순한 휴식으로 보기도 한다. 그는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 9개월 동안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집거 생활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사적인 영역까지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진흙탕 싸움에 휘말린 탓에 외부활동을 자제해왔고 이제 소송을 마무리해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났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해외무대를 겨냥한 새로운 활동을 구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사실 클라라는 당초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할리우드에서 머물며 현지 영화와 드라마 출연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분쟁이 시작되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국내 활동마저도 제약을 받았다. 또 다른 연예계 관계자는 "클라라는 소송 전부터 홍콩과 중국으로부터도 여러 제안을 받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활동 방향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li1024@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고소영, 일본계 금융업체 모델 계약해지 논의



일본계 금융업체와의 모델계약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인 배우 고소영(사진)이 해당 기업 측과 계약해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영은 최근 제2금융권인 일본계 J기업과 모델 계약을 체결, 광고 촬영을 마쳤지만, 이 기업이 대부 관련 업무를 다루는 업체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어났다. 앞서 고소영 측은 "고급리 상품이나 대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기업광고 이미지 모델로만 계약을 맺었다. 기업의 상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 바 있다.

JYJ 김준수, 11월 7·8일 서울서 단독 콘서트



그를 JYJ 김준수(사진)가 11월 7~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015 시아 포스 아시아 투어 콘서트 인 서울' 공연을 벌인다. 이번 앨범은 10월 발표하는 솔로앨범 활동의 일환이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공연에서는 그동안 발표했던 곡들을 색다른 콘셉트로 구성하고, 10월 발표될 신곡들도 들려준다"고 밝혔다. 앞서 김준수는 24일 일본 요코하마 공연으로 아시아 투어를 시작한다.

사이니 종현, 내달 2일 소설 '산하염...' 출간

그룹 사이니 종현이 10월2일 소설 '산하염-흘러간, 놓아준 것들'을 출간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종현만의 감성이 녹아있는 글과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 책은 17일 발매된 종현의 첫 소설집 '이야기 Op.1' 수록 곡들과 기존 사이니의 곡까지 종현이 작사한 총 12곡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로 풀어냈다.

김경란·김상민 부부, 남수단 아동 돕기에 1억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과 새누리당 김상민의 의원 부부가 아프리카 남수단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4일 "김경란-김상민 부부가 결혼식 축하금 1억원을 재단에 쾌척해 '초록우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3일 서울 무교동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제3회 '초록우산 명예의 전당' 위촉식에서 고액·장기후원자로 위촉됐다.

편입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스포츠동아가 제안하는 '열애설 표준 보도자료'

연예기획사들의 '편의'를 위해 열애설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표준 보도자료를 제시한다. 본 자료는 기획사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하는 표현으로 구성했다. 전속연기자의 연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본 보도자료를 활용하길 권한다. 문서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다.

일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컴퓨터 자판의 Ctrl C, Ctrl V 기능으로 복사해 사용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00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연기자 이홍룡의 금일 열애 보도와 관련

련한 공식입장을 전달해드립니다.

보도를 접하고 이홍룡에게 확인해 본 결과, 선충황과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됐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관심이 같고, 인생에 관해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친분

을 이어오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오면서 현재는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고, 연기자로서 좋은 작품으로 대중과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타, 그때 어린 일이 | 1990년대 추석 풍경

'장군의 아들' 추석 극장가 한국영화의 신화

예나 지금이나 추석 명절은 마음 한 구석을 포근하게 감싼다.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이웃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게 한다. 팍 막힌 도로 위에서도 저마다 즐거운 표정을 짓는 이유다. 그렇다면 1990년대 추석 연예계 표정은 어땠을까.

● 교통상황 생방송의 시작

1990년 교통방송(tbs)이 9월30일부터 대대적 교통상황 생방송을 시작했다. 그해 6월 개국한 교통방송은 국내 방송사상 처음으로 교통정보 상황실을 설치하고 '추석 교통특별대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생방송했다.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등 1000여명의 통신원과 경찰 및 산림청 헬기 3대, 6대의 중계차, 4개의 오픈

스튜디오가 동원됐다.

● 극장가 "연제나 방화 VS 외화"

명절 연휴에 빼놓을 수 없는 영화 관람. 극장가도 붐볐다. 하지만 1990년 극장가는 그렇지 않았나보다. 닷새간의 긴 연휴, 흥행을 겨냥한 21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그러나 유례없는 부진을 겪었다고 당시 언론은 썼다. 그런 상황에서도 '장군의 아들'(사진)은 6월 개봉 이후 추석 연휴에도 흥행세를 이어갔다. 결국 10월16일 '겨울여자'의 58만5700여명(서울 관객 기준) 기록을 깼다. 1992년에는 '신 용문 객잔'과 청룡(성룡)의 '폴리스스토리' 등 흥풍영화가 극장 간판을 채우기도 했다. 당시 무협과 갱스터 등 흥풍영화의 강세를 말해준



다. 하지만 매년 추석 연휴에는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외화와 방화(한국영화)의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 정겨운 '추억'의 훈훈함

추석 연휴 각 방송사의 다양한 특집프로그램이 방송된 건 예전에도 마찬가지. 그 중에서도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스타들의 모습을 비추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9월 KBS 1TV '광복 50년 시간의 징검다리'를 비롯해 SBS 'TV전파왕국' 등이 방송돼 그리운 옛 스타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1996년에는 박인환 윤문식 최주봉 이효준 이영하 배종옥 이재룡 김희선 등 20여명의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 스타들이 'TV동창회'로 모였다. 1998년 10월 KBS 1TV '그 시절 그 쇼'와 MBC '무대인생 반세기-선우배 큰잔치' 등에는 현인에서부터 변진섭까지 한국 대중문화를 꽃피운 이들이 대거 출연했다.

이웃과 함께하는 스타들도 있었다. 1993년 9월 이창호 감독과 배우 박중훈, 가수 이동원과 김광석 등이 1980년대 정치적으로 수배된 이들을 위한 '보고 싶은 어머니, 나의 어머니' 공연에 참여했다. 1998년에는 김인문 설윤도 현숙 엄정화 김원준 제스키스 등이 KBS 1TV '생방송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해 30만개의 '사랑의 송편'을 2만8000여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배달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